

어떤 한 달 살이

김애옥 방송작가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제주 한 달 살이’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 내적 치유가 필요했어. 그러기 위해선 일단정지 혹은 잠시 멈춤부터 해야 했어. 활자중독증에 가까운 습관과도, 뭔가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과도, 그리고 사람 좋아해 약속 많이 하는 생활과도 이별하기로 결심하고 서울을 떠난 거야. 숙소가 제공된 기회는 분명 축복이야. 그런데 네가 물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조랑말이 내려와 풀을 뜯어먹거나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곳은 아니야. 제주시내라 다른 도시와 확연한 차이를 못 느끼지. 걷기 전에는 말이야. 왕복 160킬로미터를 운전해서 출퇴근하던 내게 걸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모두 새롭고 귀한 선물이었단다.

제주는 겨울에도 동백꽃과 함께 로제트식물로 보이는 땅에 바짝 붙어 겨울을 이겨내는 노란 꽃(아마도 서양 민들레)들이, 그리고 품격 있는 후박나무가 가로수로 펼쳐져있단다. 대로보다는 좁은 길, 그리고 골목길을 주로 걸었어. 걷는 길의 대명사가 된 올레길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SNS에서 핫한 곳은 더더욱 아니야.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걸었어. 발길 닿는 대로 말이야. 역사가 물결치는 오름을 오르는

일은 주말 보너스였다. 달리기는 못하고 걷기는 좋아해. 마라토너 한 분이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하시더라. 그 운동을 한 달 내내 제주시에서 했단다. 오전에 무조건 편한 신발과 복장을 갖추고 숙소 밖을 나왔어.

여긴 바람이 자주 불긴 해.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의식처럼 창문을 열고 아지수를 쳐다보게 돼. 아지수 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제주에 찾아왔다는 표시로 알고 머플러를 챙기지. 이어폰을 끼고 출발한 적도 있지만 이젠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직접 듣고 안에서 조율하고 싶어. 지도를 거의 보지 않고 만보기로 걸음 수를 기록하지도 않아. 거리와 시간 계산도 하지 않았어. 느린 걸음으로 걸었어. 큰 돌이나 돌하르방에 표기된 동네 이름부터 낯설어 지루하지 않아. 정겨운 플래카드가 걸려있었어. 마을이름, 부모이름과 함께 ‘둘째아들 스대 컴퓨터공학과 합격’. 의류수선집 앞에는 귀여운 아기사진과 함께 ‘손주 돌보느라 5시까지만 해요. 양해 바람’. 이렇게 골목길에는 스토리텔링이 있단다. 그렇게 걷다보면 담 없는 아파트단지 걸으며 굴밭이 펼쳐지고 붉은 동백이 지천인 전통가옥이 나타나고 갑자기 바다가 보이고


그래. 흙길이나 돌길을 만나면 참 좋았고, 아스팔트도 제법 걸었어. 한 번은 외도물길에서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걷다가 배가 고파오면 500원 하는 찹쌀떡배기를 사먹기도 했어. 혼자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던 내가 혼밥도 곧 잘 하게 됐어.

제주는 가게 입구에 꿀을 한 바구니씩 놔두는 곳이 많아. 상품화하지 못하는 좀 못 생긴 꿀들을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하네. 그 꿀들을 다시 오가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제주사람들에게 꿀은 사먹는 음식이 아니고 얻어먹는 음식이란단다. 속옷가게도, 꽃가게도, 분식점도 자유롭게 꿀을 집어가게 놓아둔 거야. 여기 사람들이 가끔 외지인이나며 이것저것 묻기도 해. 관심의 표현이야. 서울사람들처럼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묻지 않는 세련됨은 부족해 보여도 정감 있지 않니? 그런데 수백 년 된 해송 아래에서 쉬고 계시던 등 굽은 제주 할망이 하는 말들은 외국어 같아서 대부분 알아듣지 못했어.

걷다보면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들도 보이더구나. 20년 전, 우리가 미국 뉴저지에 잠깐 살았을 때 동네 도서관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신기했잖아.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걷다가** 쉬어가는 기분으로 **작은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기도 했어. 그러다 나와서 걸으면 감히 기대하게 되더라.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에 좀 더 성숙한 태도로 상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말이야. 마음을 멈출 사이 없이 빛의 속도로 살다가 시계를 보지 않고 그만 걷고 싶을 때까지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조금 피곤해진 걸음으로

저녁 찬거리를 사오곤 했지. 농협마트 로컬푸드 코너에서 제주산을 사면 최고야. 향긋한 냉이를 실컷 담았는데 천 원도 안 돼 깜짝 놀랐어.

육지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은 것은 아니야. 공항이 가까워서 낮게 떠있는 비행기를 볼 때 백화점 가본지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 강남의 거리들이 떠오르기도 했어. 속물근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자신을 알아차려 보는 거지. 그러면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제주인들 일상의 삶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걸으면서 스스로 얻어낸 수확이라 자랑스러워. 화산이 빚어낸 독특한 해양지형에 놓인 구멍 송송 뚫린 검은 돌담들처럼 내 영혼의 허파에서 내뿜는 호흡이 맑고 평안해질 것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야.

걷고 걸었어. 걸음으로 구원에 이를 것처럼 말이야. 겨울이 가면서 보여주는 애기초록을 환하게 맞이하고 싶을 뿐이야. **제주에서의 한 달 걷기가 내겐 순례길 같았다. 사랑하는 아들 진아, 생각나니? 네가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시골 이모집 한 달 살기 하고 왔는데 그러더구나. 들길을 걷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만히 ‘엄마’하고 혼자 불러보았다고. 그런 경험, 나도 며칠 전에 했단다. 월대천을 가로지르는 돌길을 걷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몹시 그리웠어. 그래서 돌 위에 그대로 멈춰서 낮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어, ‘엄마~!’** 

※**김애옥**: 방송작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 교수. 1961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여고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서강대와 동국대에서 문화콘텐츠 전공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SBS TV 드라마 ‘공룡선생’ 등을 집필했고, 소설집 〈응답하라 필승〉과 실용서 〈우선순위 자기소개서〉 등을 출간했다.

※본문의 본홍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했습니다.